

오늘은 몸의 면역체계에 이어서, 몸의 건강한 세포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과학이야기, 의학상식의 건강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몸인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셀(cell)”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CELL이 뭔가요? 세포입니다. 인체는 약 30조~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며, 평균 크기는 약 0.01~0.02mm로 미세하지만, 혈액 세포 부터 긴 신경세포까지 다양합니다. 성인 남성 기준 약 36조 개, 여성 약 28조 개의 세포가 존재하며, 적혈구가 전체 세포 수의 84%를 차지하여 가장 많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나 보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전체적인 신체 기능이 원활해지고, 질병 없이 건강한 상태가 됩니다. 세포는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아 에너지를 만들고, 손상된 세포는 스스로 치유하거나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며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세포가 건강하지 않으면, 만성 피로, 잦은 감기, 면역력 저하, 피부 트러블, 만성 염증 등 신체 기능 전반이 저하되는 신호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세포 손상이 지속되면 암, 노인성 치매, 당뇨병, 고혈압 등 퇴행성 질환과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면역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포 건강은,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꾸준한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혈액 순환을 개선하며, 깊은 잠을 통해 세포를 복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비밀은 바로, 면역력(면역 세포)라면서,

<내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7가지>라는 글에서,

- 1.장과 뇌를 건강히 하라
2. 비타민 D를 보충하라
3. 잠을 충분히 자라
4. 많이 웃어라
5. 체온을 유지하라
6. 컬러푸드를 섭취하라
7. 다음날 피로하지 않을 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하라

세포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듯, 셀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롬 12:11-13은 단순한 개인 경건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7가지 건강한 행동 패턴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11.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3.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12장은 몸인 교회의 지체로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매우 실제적으로 보여 줍니다. 특히 11절부터 13절은 신앙이 머리로만 머무르지 않고, 삶과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보여 줍니다. 바울은 교회를 거대한 조직으로 보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몸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태도와 행동이, 곧 교회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은 건강한 세포,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7가지 행동을 보여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이 단지 교회의 구성원이 아니라, 교회의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세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로마서 12:11)

“Never be lacking in zeal”(NIV) 이것은 무슨 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각자의 세포가 자기의 맡겨진 부분을 부지런히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말한 것처럼, 우리 각자는, 은사를 따라 주님을 섬깁니다. 흥정역에 Not slothful in business (kjv)라고 표현했는데, 우리의 비즈니스는 우리의 은사(恩賜 gifts)가 되겠습니다.

헬라어로 부지런하다는 말은 σπουδή(spoudé) 마음을 다한 진지함, 열심(熱心), 전념(專念)을 뜻합니다. 건강한 세포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으로 열심히 감당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자신들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셨습니다. “제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요 9:4) 요한 5:17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이 있고 예수님도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은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깊어집니다.

2.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라. (로마서 12:11)

Never be lacking in zeal” but keep your spiritual fervor, serving the Lord.(NIV)

전반부에서 부지런을 Zeal, 즉 '열심'으로 표현했는데요 후반부에선 Fervor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휘버는 '뜨거운 타는 듯한' 이라는 용어로 'Passion'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spiritual을 붙여서 spiritual fervor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 '열심을 품고 spiritual fervor로 주를 섬겨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 열정으로 충만한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대표입니다. 그는 자신을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예수만나기 전에도,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만난 후에는, 더욱 열심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애함이로다. (고후11:2)”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열심(熱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구약적인 말입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쓴 말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열심 있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을 하였고, 그 예언의 끝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을 첨가합니다. (사 37장 32절).

언젠가도 말했지만, 열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것이라는 표현의 단어가 있습니다. Enthusiasm이란 단어입니다. Enthusiasm (열정) 이란 말은 in + 데오스(God) + ism의 합성어입니다. 이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rp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Originally an enthusiast was a person possessed by a god) 그래서 이 말에는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진정한 열정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는 어디서 볼수 있나요? 첫째 우리의 구원에서 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의하면, “2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다른 표현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마가 12:29-30) 왜 그러실까요? 바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표준새번역 에션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게 잘못된 것만 회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계시록 2-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서신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야 교회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라오디게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와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히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지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기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로 보이지 않게 하고 인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悔改)하라** (계3:14-19)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내용은, 열심이 없는 것을 죄라고 하니 회개 하라는 것입니다. 열심이 없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곳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 납니다. 건강한 세포는 열정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3.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 가쁨 (롬12:12 상)

Be joyful in hope (Niv) Rejoicing in hope;(kjv) (NASB)

<부지런>과 <열정>에 이어 3번째는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을 규정해주는데 어떤 즐거움이냐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소망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지만 미래에 보장된 어떤 것에 대한 즐거움이라는 말도 되겠습니다. 과거나 현재보다 미래의 즐거움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도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해야 하나요?

2017년 영국 크리스천투데이는 신약에 타난 소망에 관한 구절 4개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저는 4번째부터 역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4. 에베소서 1장 17~19절 / 부르심의 소망. (삼위하나님의 구원사역입니다)

3. 히브리서 6장 16~20절 / 하나님의 약속이 맹세로 보증.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소망

2. 요한일서 3장 1~3절 /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만날 거룩한 소망, 그것으로 정결하게 사는 것.

1. 로마서 5장 1~5절 / 이 구절이 소망과 관련해서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구절입니다.

이중 1-2절을 먼저 봅니다. 저는 이 구절을 기쁨의 관점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구절들에는, 4가지 서사(敍事)가 있습니다. 1)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기쁨입니다. 2) 하나님과의 화평의 체험을 누리는 자의 기쁨 3)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의 기쁨, 4) 하나님

의 영광을 바라는 즐거움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즐거움만 있지 않은 것도 압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인내입니다. 이것이 4번째 CELL 의 기능입니다.

4. 환난 중에 참으며 (롬12:12 중)

patient in affliction(NIV) patient in tribulation(KJV,NASB)

하나님은 모든 셀에게 인내 DNA를 넣어주셨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셀에 T CELL B CELL을 넣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들을 성령으로 넣어주십니다.

이 구절의 환란은 ‘affliction’ 또는 ‘tribulation’으로 번역되었습니다. tribulation은 탈곡기계라는 어원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마다, 외부적인 압박과 시련이 뒤따르지만, 인내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로마서 5:3절부터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 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롬5:3-6)”

이 구절들이 말하는 바는 우리에게 소망(所望)이 무의미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부은바 되면 내 안에 희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환란가운데도 즐거워하며 인내가 의미있는 연단으로 그리고 참소망으로 변하게 된다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인내의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구약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 62:5)

사도바울도 외쳤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 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분이며,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구원자가 되십니다. (디모데전서 4:10).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롬8:24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환란을 견디어낼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정입니다.

5. 기도에 항상 힘쓰며, (롬12:12 하)

(Be) faithful in prayer (Niv) continuing instant in prayer.(kiv)

기도야 말로 우리의 열정을 이어나갈 방법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님을 섬기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기도가 대화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NIV가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강조한 데 비해서 KJV는 continuing instant in prayer 라고 말함으로, 기도의 계속성, 즉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란이 와도 소망을 버리지 말고 즐거워하며, 기도로 계속 나아가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쉬지말고 기도하는 사람(데전5:17),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고 기도하는 사람(누가18장1절)을 통해 주님은 섬김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는 셀의 혈류와 같습니다. 기도가 멈추면 공동체는 열심은 있어 보여도 금세 메마르며, 기도가 지속될 때만 영적 생명이 공급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는 이 말은 단발성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끈질긴 기도를 뜻합니다.

기도는 교회의 호흡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몸이 살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살아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영적으로 숨이 막힙니다. 기도는 단지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생명선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곳곳에서 그들은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기도할 때 담대함을 얻었고, 기도할 때 방향을 받았고, 기도할 때 공동체가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의 셀들이 건강하려면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나눔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공동체는 더 깊어집니다. 기도하는 셀은 살아 있는 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롬8:26-27)

우리는 지금까지 5가지 셀의 주요활동을 이야기했습니다.

- 1.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2.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3.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4. 환난 중에 참으며, 5. 기도에 항상 힘쓰며,

어찌 보면 위의 5가지는 우리자신의 영성과 주님과 관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부지런함, 열정, 즐거움, 환난중에서 인내,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고있는 활동들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우리의 모임에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두 가지를 더 합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의 섬김과, 교회밖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6. 성도들의 필요를 나눔(롬12:13상) Share with God's people who are in need (Niv) Distributing to the necessity of saints:(kjv) contributing to the needs of the saints, (NASB)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함으로 그들의 관심을 나타냅니다.

- 초대교회는 과부를 구제하는 일이 필요해서 7집사를 선정하였습니다.
-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기도 하였습니다.
- 요한일서 3:17-20절에서 사도요한은 교회안의 형제들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21.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한일서 3:17-22)

이 말씀에는 몇 가지를 유의할 말씀이 있습니다.

- 1)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 2) 진실된 행동이 진리에 속한 것을 드러내고, 우리를 굳세게(견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 3) 형제를 그렇게 사랑해야 우리 마음에 가책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 4)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 COUNT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 5)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높은 자리에서 명령만 하신 분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손수 섬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의 섬김은 단순한 역할 수행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셀 안에서 누군가를 돕고, 환영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모든 일은 결국 주님께 드리는 섬김입니다.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는 이런 섬김이 사라져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섬김은 사람을 살립니다. 차 한 잔, 식사 한 끼, 따뜻한 인사, 귀 기울여 듣는 태도, 이런 작은 실천이 교회의 체질을 바꿉니다.

7. 손님에 대한 환대

Practice hospitality. (Niv) given to hospitality.(kjv) practicing hospitality. (NASB)

사도는 우리의 섬김이 교회내에만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고, 교회밖의 사람들에게로도 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에 대한 섬김과 믿지않는 사람에 대한 섬김,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래전 중국 연변에서 오신 어떤(공홀)선교사님이 사역지로 돌아가신후 보내온 메일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Thankyou your warm **hospitality**라고. 자주 안쓰는 말이라 뭘 말이지? 하고 찾아보았는데 “환대(歡待), 후한 대접. 친절.”과 같은 아주 좋은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 25:31-46절에서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좌우로 짝 나누어놓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임금님 주리고,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이 그럴 이유도 없거니와 그런 적도 없었는데 임금은 두 부류로 사람들을 나누어놓기 시작합니다.

* 사람들이 황당해 하기 시작합니다. 의인으로 분류된 사람도, 죄인으로 분류된 사람들도 다 황당해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나뉘진 것인가? 임금의 답변이 이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40,45절)

* 이 임금은 훌륭한 임금이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과 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으로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것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푸대접하는 일이 바로 주님을 푸대접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야 합니다.

맺는 말 : 오늘 우리는 7가지 세포의 활동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들이 “부지런한 cell, 열정있는 cell, 기쁨의 cell, 인내의 cell, 기도하는 cell, 나눔과 환대의 cell이 되게 해주세요”

집이 튼튼한지 확인하려면, 겉모양보다 기초와 기둥을 봐야 합니다. 겉은 번지르르해도 기초가 약하면 무너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형보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오늘 말씀 7가지가 있으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살고, 우리가 게으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교회, 그리스도인의 몸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사람들을 통해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강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열정으로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그리고 이것이 안되는 사람들로 인해 자신과 몸이 상처를 입고 병들 때 우리모든 세포가 달려들어 치료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길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사람 하나님의 교회의 셀이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건강해, 하나님의 교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내가 병들어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고 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을 주여 치유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외형적 화려함이 우리에게 없어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한 삶으로 이곳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